

자연과 함께 자라는 창작놀이

나뭇잎 한 장이 숲이 된다

내가 고른 나뭇잎 한 장이 숲이 된다니!

나뭇잎 한 장을 천천히 관찰해요.
같은 잎의 위치와 방향, 색을 바꾸어
나만의 숲을 만들어요.

1 잎 한 장 살펴보기

2 같은 잎으로
여러 나무 만들기

3 길과 생물을 더해
내 숲 완성하기



각자 자기 종이에 만들고, 서로의 숲 이야기를 나눠요.

준비물과 사전 준비

처음 고른 한 장으로 여러 나무를 만들어요.

아이마다

깨끗한 낙엽 한 장 · 큰 종이 한 장 · 연습 종이
아이 연령에 맞는 씻어지는 물감 · 붓 · 색연필



함께 쓸 것

책상 덮개 · 앞치마 · 닦는 천 · 물통

시작 전 어른의 준비

- 1 안전하다고 확인한 낙엽을 씻어 물기를 말려요.
- 2 물감은 조금씩 덜고, 작업 자리와 말릴 자리를 나뉘요.
- 3 아이가 자기 앞을 관찰할 시간을 먼저 주세요.

처음 고른 한 장을 위치와 방향을 바꾸어 계속 사용해요.

한 장이 숲이 되는 시간

얇게 바르기 → 가만히 누르기 → 조심히 떼기



바르고



누르고



떼어요

1 한 장을 만나요

앞뒤를 보고, 가장자리와
잎맥을 손끝으로 느껴요.

“앞에 어떤 선이 숨어 있을까?”



2 첫 나무를 만들어요

잎맥이 도드라진 면에 물감을
얇게 발라요.

칠한 면을 종이에 대고 눌렀다가
조심히 떼어요.

어른은 연습 종이에 한 번만 보여 주고
기다려요.



3 같은 잎으로 숲을 넓혀요

잎의 방향과 자리를 바꿔
여러 번 찍어요.

색을 바꿀 때는 잎을 닦고
새 물감을 얇게 발라요.

“이번 나무는 어디에 자라면 좋을까?”



4 내 숲을 완성해요

물감이 마르면 색연필로 줄기, 길,
작은 생물을 더해요.

빈 곳을 남겨도 좋아요.

아이가 끝을 정하도록 기다려요.



혼자 또는 함께

혼자: 내가 고른 잎 한 장을 반복해 나만의 숲을 만들어요.

함께: 각자 만든 나무를 모으고 길과 생물의 자리를 함께 정해요.
친구 나무 근처에 더할 때는 먼저 물어요.

함께 돌아보고 기록하기

내 숲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?

작품을 고치거나 정답을 찾기보다
아이의 발견과 이야기를 들어 주세요.

같은 앞인데
어떤 나무들이 생겼니?

네가 가장 마음에 드는
곳은 어디야?

이 숲에 이름을
붙인다면?

기록은 짧게 남겨요

아이가 발견한 잎의 특징

아이가 바꾸어 본 것

아이가 들려준 숲 이야기

안전하게 즐겨요

- 어른이 확인한 깨끗한 낙엽만 사용해요.
모르는 식물, 수액이 묻거나 가시가 있는 잎은 피해요.
- 아이 연령에 맞는 재료를 쓰고, 입과 눈에 닿지 않게 살피요.
- 잎이 찢어지면 비슷한 잎으로 바꾸어 이어가요.

마무리

작품은 말릴 자리에 놓고, 붓과 물통을 씻어요.
잎과 도구를 정리한 뒤 손을 씻어요.